(全매체) 2013년 5월 9일(목) 10:3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기청 해외시장과 이정화 과장(042-481-4391), 민경기 사무관(4392)

수출中企 10만개 · 글로벌강소기업 3천개
17년까지 창조경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1 수은, 무보 등 수출금융기관 대상 중소기업지원 실태점검 착수

2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 강소기업 조기 육성

3 해외조달 및 EDCF 참여 등 中企 해외진출 방식 다양화

□ 지난 반세기 **대기업 위주의 수출촉진 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무역 2조 달러 달성의 핵심주역**으로 이끌 계획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

○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 관계부처가 신속한 시행방안을 마련, **정부대책이 현장에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차원이며

○ 최근 세계경기 침체, 엔低 심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환경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 중소기업 수출역량·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동 방안은 수출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

※ 참고 : 중소기업 수출애로 및 문제점

①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초보기업 위주 지원으로 수출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수출구조는 여전

②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B2B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③ 글로벌 시장 진출단계에 적합한 금융지원 체계 미흡

④ 수출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수출애로 원스톱 처리에 한계

□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등 5대 정책과제**를 마련

○ 2017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0만개**('12년 8.6만개), 수출 1천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3천개**('12년 1,952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13.5)'을 통해 내수 및 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전국11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글로벌역량진단(마케팅·R&D 역량 등)도입, 수출역량별로 수출지원시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

<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



* GLT(Global Level Test) : 마케팅 준비도 및 인력수준, 경험 등 해외마케팅 역량 테스트

-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13.5)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조기 육성

  * 글로벌 컨설팅회사를 통한 글로벌 역량진단 및 해외진출전략(로드맵)수립 후, 유관기관 합동 해외마케팅·R&D·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해외시장 중심의 **R&D지원 확대***,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제품 고부가 가치화' 실현

  * R&D : ('12년) 150개 과제 356억원 → ('13년) 180개 과제 485억원

  ** 이탈리아 '도무스 아카데미'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선진디자인 도입 지원

②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품목 및 해외진출 방식별 맞춤형 지원

- 해외 주요 거점별 **'중기제품 전용 매장 설치 확대***' 및 **'현지물류 및 A/S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확대

  * 2013년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청도·북경 등 신규 설치

- **글로벌 B2C, B2B 사이트** 마케팅 및 **온라인 수출전문교육** 확대

  * 알리바바, 아마존 등 온라인거래 플랫폼 등록 확대('12년 958→'13년 1,000개사) 및 Google, Yahoo 등 검색엔진 마케팅 활용 확대('12년 619→'13년 800개사)

  ** e-마켓 플레이스 활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실시('13년 500명)

- 대기업 해외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확대

  * 롯데마트 해외매장 활용, TV홈쇼핑사(CJ, GS, 롯데, 현대) 해외플랫폼 활용 등

  * 기타 대기업 현지사무실 등 공동 활용 및 대중기 동반 해외전시회 참여확대 등

- **해외정부·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조달담당자 초청 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6회)

** 컨설팅 입찰 평가시 가점 부여, 소액차관사업 범위 및 분리발주 확대 등

③ 체계적인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체계 구축

- 내수·수출초보,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수출역량별 금융지원 체제 구축

  * 수출초보기업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규모 확대 및 무역보험 확대 등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기보, 중진공)

- 수출-非금융 연계지원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

  * R&D 성공제품 양산자금 지원(중진공), 시설확장 등 대상에 수출유망기업 포함(수은) 등

- 기재부·산업부·중기청 협업으로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을 실시,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체제 구축

  * (산업부·중기청) 기관별 중기 지원실적 점검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제1차 무투회의 :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67.4 → 73조원, 5.6조원↑)

  · 기관별 규모(조원) : (수은) 25→25.5(0.5↑), (정금공) 0.2→0.3(0.1↑), (무보) 35→40(5↑)

④ FTA 및 환변동 대응역량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 **FTA 교육·컨설팅 확대**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 FTA 활용교육 : '12년 7.3천명→'13년 8천명, FTA 컨설팅 '12년 448→'13년 700개사

  * ERP연계 원산지 증명시스템 개발 : '12년 13억원 134개사→'13년 20억원 200개사

- 환리스크 대응역량 확대를 위해 **환변동 보험** 및 **컨설팅·교육 확대**

  * 환변동보험 1.3조원 증액(무보공사) 및 보험가입비 지원(중기청)

  *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 환관리 컨설팅 및 교육 확대 (年1,00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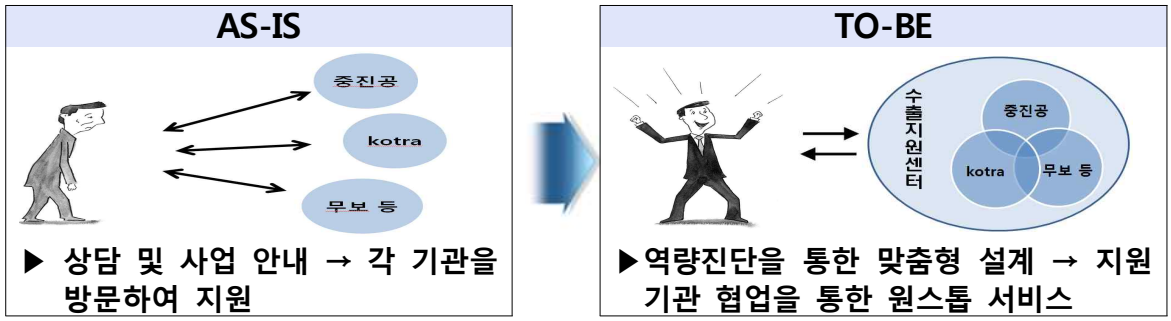
※ 관계부처 합동 'FTA 활용 종합대책' 마련('13.6) 예정

⑤ 원스톱 수출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수출지원센터에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수출 애로 상시발굴 및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 시현**

  * 5대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에는 중진공과 kotra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타 지역은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무보, 수은 등) 인력 보강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체계 >



-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등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추진** ('14년)

  * 2014년 EDCF 활용국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추진

  * 신흥국 중심 해외민간네트워크 신규 발굴 ('13년 50개국 → '14년 60개국 이상)

□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창조적인 아이디어,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주축으로**'

○ 'FTA 확대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임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해외에 자랑할 때**' 라면서,

○ '금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대책이 현장에서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직접 챙겨**,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맘껏 뽐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민경기 사무관(☎ 042-481-4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별 첨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2013. 5. 9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문제점 ····· 4

1. 중소기업 수출의 현주소 ····· 4

2. 해외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5

Ⅲ.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 6

1. 수출역량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 7

2. 해외 진출방식의 다양화 ····· 10

3. 수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 15

4.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 17

5.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19

Ⅳ. 추진일정 ····· 21

Ⅰ. 추진 배경

□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하에서 양적 성장전략만으로는 **수출을 통한 경제부흥을 달성**하는 데 **한계 인식**

○ 이에 그간 대기업 중심의 무역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 제시 (무역투자진흥회의, 5.1일)

□ 세계경기 침체 장기화,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 상존**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양적완화, 법인세 인하, 수출확대 정책 등으로 **자국의 산업을 육성**

* (美) 국가수출확대정책(NEI) 강화 등/ (日) 무제한 양적완화, 법인세 인하 등

○ 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무역규제(TBT), 지재권 등을 강화**하는 추세

* WTO 기술규제 통보건수 : ('06) 875건 → ('12) 1,560건

☞ **중소기업도 이러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13.4, 중기중앙회)**

▣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①판로개척의 어려움(47.2%), ②세계 경제불안 및 경기둔화(40.2%), ③가격경쟁력 약화(39.4%) ④ 자금조달 곤란(27.5%), ⑤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영불안(26.8%)

□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무역 2조달러 달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진출 경로 다양화**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저변을 확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육성**

참고 : 중소기업 무역 환경변화

□ **(환율)**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 등에 따른 **엔저심화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 엔/달러 : ('12.4말) 81.5 → ('13. 4말) 97.9 ('12.4말 대비 20.1%↑)
* 원/100엔 : ('12.4말) 1,393.9 → ('13. 4말) 1,132.5 ('12.4말 대비 18.8%↓)

○ 중소기업 조사결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적정 환율은 1달러당 1,138원**으로 조사대상 중소기업 88.2%가 환율하락에 부정적 응답('12.11월 중기중앙회)

* 원/달러 환율이 1% 하락시 영업이익률은 0.08%에서 최대 0.5%까지 감소 예상 (KB경영연구소 : -0.08%, 삼성경제연구소 : -0.099%, 산업연구원 : - 0.5%)

□ **(경쟁)** 환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술무역규제(TBT)·지재권 강화 등 **新보호무역주의 확대**

○ 중국의 저가 공세, 일본의 엔화 약세 등으로 저가제품은 경쟁력을 잃고, 하이테크 제품을 제외한 **수출 1위 품목 감소추세**

*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 수(개) : ('09) 73 → ('10) 71 → ('11) 61
* 1위 제품 : 메모리반도체, 선박추진용 엔진, 자동차 부품 등

○ WTO와 FTA 확대에 따라 **자국시장과 산업보호를 위해** TBT 등 **비관세 장벽 강화추세**

- 자국산 구매정책, 불공정행위 규제, 안보·안전 및 보건 등의 기술규제 급증('06년, 875건 → '12년, 1,560건)

□ **(기회)** FTA 확대 및 한류열풍으로 해외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우리 소비재(B2C) 제품의 수요 증가

□ **(해외시장)**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은 있으나, **EU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 주요 경제지표 상승, 경제성장율 개선 등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시퀘스터 발효 등 **위험요소 상존**

* 시퀘스터(Sequester) :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조치

○ **(중국)** '12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증가하고, 제조업 PMI 지수 회복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13년 1분기는 둔화**

* 구매자관리지수(PMI) : ('12.6월)50.2 → (9월)49.8 → (12월)50.6 → ('13.3월)50.5

○ **(EU)** 고용부진과 정부 긴축재정 등이 소비 및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당분간 경제 침체상황 지속**전망

○ **(일본)** 최근 엔화절하 효과로 산업생산 개선 등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중이나,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우려**로 지속여부는 불투명

< 주요국의 경제지표 >

구 분		'11년	'12년				
			'12.1Q	'12.2Q	'12.3Q	'12.4Q	연간
미국	GDP 성장률	1.8	2.0	1.5	2.0	-0.1	2.2
	실업률	8.9	8.2	8.2	7.8	7.8	8.1
일본	GDP 성장률	-0.6	5.7	0.3	-3.5	-0.4	1.9
	실업률	4.6	4.5	4.3	4.2	4.2	4.3
EU	GDP 성장률	1.4	0.0	-0.2	-0.1	-0.6	-0.4
	실업률	10.2	11.0	11.4	11.6	11.7	11.4
중국	GDP 성장률	9.3	8.1	7.6	7.4	7.9	7.8
	실업률	4.1	4.1	4.1	4.1	4.1	4.1

○ **(신흥국)** 브라질은 **실업률 감소 등 경기 회복세** 확대가 예상되나,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위험요소로 작용

* 브라질 실업률(%) : ('12.3월) 6.2 → (6월) 5.9 → (9월) 5.4 → **(12월) 4.6**,
*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 ('12.3월) 3.7 → (6월) 4.3 → (9월) 6.6 → **(12월) 6.6**

Ⅱ.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수출의 현주소

□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정체**되어 있고 수출규모도 **영세한 수준**

○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증가**(1.1%)했으나, **전체 수출의 18.7%**에 불과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1Q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증감	수출액	비중	증감
총수출	466,384	100%	555,214	100%	547,870	100%	△1.3%	135,465	100	0.5
중소기업	98,624	21.1%	101,560	18.3%*	**102,651**	**18.7%**	**1.1%**	**24,262**	**17.9**	**0.3**
중견기업	62,628	13.4%	81,894	13.9%	80,447	14.7%	△1.8%	20,785	15.3	3.3
대기업	303,515	65.1%	371,017	66.8%	363,823	66.4%	△1.9%	90,231	66.6	0

* '11년부터 관계기업제도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비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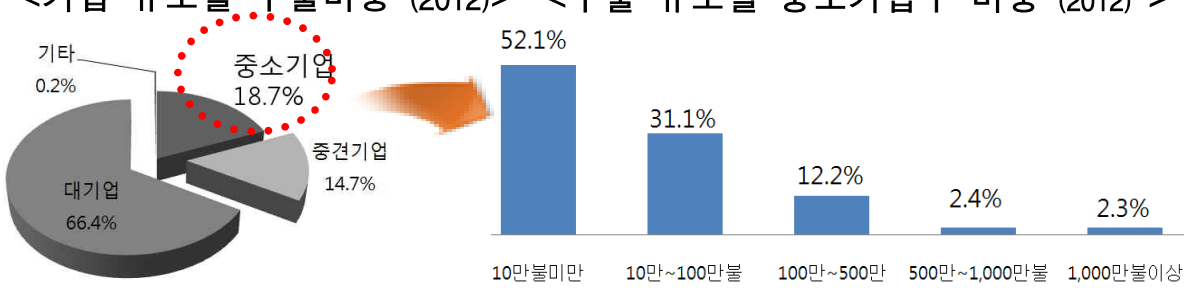
* 관계기업제도 :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적용하는 제도

○ **수출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2.7%**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이 100만달러 이하(82.7%)**로 영세

* 수출中企(개) : ('09) 77,819 → ('10) 80,564 → ('11) 82,833 → ('12)85,882

* 선진국 수출中企 비중(%) : 독일 11.3, 미국 4, 네덜란드 10.1, 이태리 5.3

<기업 규모별 수출비중 (2012)> **<수출 규모별 중소기업수 비중 (2012) >**



□ 일부 국가 및 지역에 편중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부족한 취약**한 구조

○ **단일 국가** 수출과 **수출상위 5개국** 수출비중이 **절반이상**

* 1개국가 수출 : 55.1%, 상위 5개국(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EU) 수출 : 54.4%

2 해외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초보기업 위주 지원**으로 수출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수출구조는 여전**

* 규모별 수출비중('12년, %) : (1백만달러↓) 83.2, (1~5백만달러) 12.2, (5백만달러↑) 4.7

*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분야('13.4, 중앙회) ① 맞춤형지원체계 구축(67%), ② 원스톱서비스(36.3%), ③ 온라인수출확대(30.3%), ④ 무역금융(25%)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B2B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 H사(색조화장품 생산) 전시회·시개단 등에 참여만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는바, 온라인·홈쇼핑 등 진출지원 요망('13.4, 중앙회 설문조사)

➡ 대형 유통망 진출, 온라인 수출 등 **시장별·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3 글로벌시장 **진출단계에 적합한 금융지원 체계미흡**

* A사(종합건설장비 생산) : 수출이 급증('08 : 0.3→'10 : 1억달러)하였으나, 무역금융 지원(한도 : 5천만달러)이 부족하여 생산자금 조달 애로

➡ 글로벌 **시장 진출단계에 적합한 금융지원 체계** 구축필요

4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중소기업 수출애로 원스톱 처리에 한계**

* 수출지원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활용 어려움. 한군데로 모아서 수출지원 희망('13.3.19, 부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

➡ **수출단계에 적합한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및 협업체계 구축필요

Ⅲ.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비전 중소기업을 무역 2조달러 달성 주역으로 육성

목표

- ▶ **수출 중소기업** : ('13) **8.6만개** → ('17) **10만개**
- ▶ **수출 1천만달러이상** : ('13) **1,952개** → ('17) **3,000개**



추진전략	추진과제
수출역량별 글로벌 경쟁력강화	1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2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도입 3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해외 진출방식 다양화	1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2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3 동반진출 및 공공분야 진출
수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1 글로벌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 2 수출금융의 효율성 제고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1 FTA 대응 및 활용 역량강화 2 엔저 등 환율변동 대응능력 제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1 원스톱 수출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2 해외 현지 네트워크 보완 및 특성화

1 수출역량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수출초보 → 수출유망 →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 **'글로벌 역량진단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 프로세스별 지원 및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등 **사후관리 강화**

<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

글로벌 역량진단	맞춤형 설계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 GLT*평가+현장평가 ◦ 해외시장조사	◦ 진출전략 ◦ 필요시책 활용 설계	◦ 유관기관 수출지원 사업 맞춤형 지원	◦ 지원결과 및 성과 분석 등

* GLT : Global Level Test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

○ **(내수 및 수출초보)** 무역교육, 홍보디자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을 **Package로 지원**('13년 600개사)

- FTA·수출관련 애로해소 **컨설팅 지원**('13년 700개사)
- 전문인력을 활용 무역계약서 검토, 자문 등 **통·번역지원**('13년 2,500개사)

○ **(수출유망)** 수출전략품목 위주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13년 1,200개사)하고, 중진공, kotra 등 **유관기관*에서 우대지원**

* 중기청, 중진공, 수은, 무보, 신보, 기보, 기은 등 23개 수출 지원기관

- 심층시장조사, 제품디자인, 검색엔진마케팅 등을 **종합지원**('13년 800개사)
- FTA체결국·신흥시장 중심,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2년 158회→'13년 200회)

* 전시회 참가 대형전시물은 3D영상물 제작비용 지원 검토

- 날로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확대**('12년 1,800개사 → '13년 3,000개사)

나. 글로벌 강소기업 조기 육성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조기에 육성하는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신규 도입**('13 추경, 100억원)

○ 민간전문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글로벌 **역량진단 및 해외진출 전략 수립**

* 예) 삼정KPMG, 딜로이트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추후 공모)

○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R&D·특허·금융·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지원**

<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지원 프로세스 >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현위치를 알려주고 (글로벌 역량진단)
→ 도착가능한 목적지 및 빠르고 정확한 길을 설정 (로드맵 수립)
→ 세계시장을 향해 고속으로 달려가는 시스템 구축 (집중지원)

1단계 : 글로벌 역량 진단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2단계 : 글로벌화 전략 (로드맵) 수립	3단계 : 맞춤형지원
◦ 경쟁사 분석 및 경쟁력 진단 ◦ 제품분석 및 경영시스템 진단 ◦ 해외마케팅 문제점 분석 등	◦ 핵심기술력 확보, ◦ 경쟁사 차별화 전략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R&D, 특허, 금융, 마케팅 등 집중지원

□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지원 확대

○ **(자율 마케팅)** 기존 마케팅 지원사업의 틀을 벗어나, 기업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자율 설계형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 브랜드 런칭, 전문제품 세미나, 유명 패션쇼 참가 등

○ **(연계지원) 유관기관 및 민간 은행** 등의 역량과 **정부 역량을 결합한 지원**으로 효과 극대화('13년 하반기 업무협약)

* 수은·산업·외환·국민은행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기관

다. 수출중소기업 제품 고부가가치화

□ 제품 개발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R&D 지원**

○ 기술경쟁력과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의 **수출유망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12) 90개과제, 261억원 → ('13) 116개과제, 335억원

○ 글로벌 기업 등 해외 수요처가 구매를 조건으로 의뢰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확대**

* ('12) 60개, 95억원 → ('13) 90개 과제, 150억원

○ 기술개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선별강화

- R&D지원과제 선정 시 제품의 **'수출가능성' 및 '수출효과'를 평가지표에 반영**('13.3, 기조치)

□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글로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도입 지원 강화**

○ 글로벌 브랜드 개발지원 확대 및 **해외 유명 브랜드 인수 지원** 신규 추진('12년 13개사 → '13년 20개사)

* 성주인터내셔널은 우수한 제품개발·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 MCM 브랜드를 인수하여 보다 손쉽게 세계시장 인지도 확보

○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기관***을 제품디자인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 예) IDEO(미국), TANGERINE(영국), 도무스아카데미(이탈리아) 등

* 2000년대 초반 MP3시장을 선도했던 아이리버의 경우 미국 '이노디자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

2 해외진출 방식의 다양화

가.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추진

□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화 컨설팅 등 **사전준비 지원체계 마련, 현지 물류 및 AS 플랫폼* 구축** 등

* 해외 대형유통망 정보수집, 대형유통망 발굴·전용매장관리, 물류 및 AS 지원 등 지원

□ 해외 주요거점에 대형유통매장에 안테나숍 형태의 **중기제품 전용매장(K-HIT)을 설치**하여 대형매장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기설치 중기제품 전용매장 활성화

- 홍보강화, 바이어발굴 및 상담 등

* 미국 뉴저지, 독일 기센, 인니 자카르타

○ 중기제품 **전용매장 확대 설치**

*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청도·북경



□ 해외 유명 대형매장 직접진출 지원

○ 미국의 **Sams Club 로드쇼, Fry's의 엔캡 프로모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직접 진출 추진

○ 해외 대형유통망 **유망바이어(벤더) 초청 상담회** 개최(중진공, kotra 협업, '13년 2회)

○ 소비재 수출을 위한 **전문 컨소시엄* 파견**('13년 6회)

* DPBB(Direct Presentation to Big Buyer) 활용 컨소시엄(3회), 유럽 및 미국 대형유통망 진출 컨소시엄(3회)

나.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 저비용-고효율의 **온라인 수출기반 활용도 제고**

○ 알리바바 등 **글로벌 B2B 사이트 등록**을 통한 바이어 발굴지원 확대('12년 958개사 → '13년 1,000개사)

* 글로벌 B2B 사이트 등록비용 지원 : 3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90%

○ Google, Yahoo 등 해외 **유명검색엔진에** 중소기업 제품 **상위 노출 지원**('12년 619개사 → '13년 800개사)

* 검색엔진마케팅 소요비용 지원 : 5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90%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B2C) 및 홈쇼핑 진출** 추진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관' 개설 및 입점지원

- **독일 아마존 '한국관' 확대 운영**('12년 112품목 → '13년 1,000품목)

- 중국 **아마존차이나(亞馬遜)와 경동상성(京東商城)에 '한국관'** 운영 및 **한국 상품전 개최**(5, 9, 11월)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신규 추진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우수 벤더를 판매대행사로 지정하고, **수출초보기업 상품 판매대행 지원**(2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90%)

* 이베이(美), 락쿠텐(日), 아마존(美), 티엔마오(中) 등

○ 독일·미국 **QVC 및 중국 무한(廣通) 홈쇼핑** 등 진출 추진

* QVC 로드쇼 참여(2회), 중국 무한 홈쇼핑에 한국주간 특별방송 실시

□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전문교육** 실시

○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 교육('13년 500명)

다.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 **대기업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진출 지원

○ **롯데마트 해외매장을 활용**한 진출 지원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끌라빠가딩 롯데마트 매장에 「중기제품 전용매장」 설치('12.12)·운영 중이며, 중국·베트남 등으로 확대 추진

○ 국내 **TV홈쇼핑사(CJ, GS, 롯데, 현대)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추진('13년 60개사)

○ **대기업 해외거점**(현지 사무공간, 물류 및 A/S망 등)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13년 20개사)

* 예) 한전 해외사무소(필리핀, 중국)에 중소기업 사무공간 및 상설전시장 운영

□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전시관 운용 및 전시회 참가**('13년 5회)

○ 대기업의 인지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신흥시장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동반 무역사절단 파견**('13년 6회)

□ **프로젝트 공동 수주·수행 지원**

○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시 공공기관·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전매칭 추진(국토부)

○ 해외건설협의회, 수주협의회(kotra)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부터 수주·수행까지 全과정을 지원**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수은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확대**(대기업 1차 협력사 → 2·3차 협력사)

* 상생 프로그램 지원실적 : ('12년) **1.1조원** → ('13년ᵉ) **1.3조원**

라. 공공분야 해외진출 지원 확대

□ **(해외 조달시장)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성공률 제고

○ **(준비) '해외조달 정보시스템'**(www.b2g.go.kr)을 통한 각국 입찰정보, 시장동향 제공 및 미국 조달벤더 등록 대행 강화(중진공)

* 조달벤더 등록(개사) : ('11) 55 → ('12) 60 → ('13) 70

- 중소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8개국가*를 타겟시장*으로 선정하고, **해당국 조달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조달청)

* 중국, 베트남, 인니, UAE, 터키, 러시아, 미국, UN

- 영문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 외국 구매담당자와 상담 및 **입찰서류 준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조달청)

* ('12) 종합 상담 1명 → ('13) 해외 권역별 상담인력 총 3명 이상

○ **(마케팅)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파견 및 조달시장 프라임 벤더와의 네트워킹을 위한 **현지 상담회 실시**(6월/미국, 11월/EU)

* 시개단(3회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전시회(3회, 미국, 러시아 등)

○ **(진출)** 주요 전략지역 중심으로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수출인큐베이터에 조달기업 입주 우대**(kotra)

* ('12) 8개(뉴욕, 워싱턴, 코펜하겐, 취리히, 바르샤바, 마닐라, 리마, 빈)
→ ('13) 10개(LA, 프랑크푸르트, 런던을 추가하고 빈은 제외)

- **외국 조달기관과 양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유럽·중남미 지역의 정부조달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다자간 협력 강화**(조달청)

* PPN(Public Procurement Network),
IGPN(Inter-American Government Procurement Network)

□ **(EDCF)** 입찰조건 개선,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 확대**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87년 설립,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을 지원하는 장기저리차관 사업 수행

○ **(제도개선)** EDCF가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 **입찰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비율(10~100%)**에 따라 **최대 1.0점**(0.1~1.0점) 가점 부여

* 최근 3년간 F/S 1위와 2위 업체간 평균 점수차는 2.2점(총점 100점)

-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차관사업 범위를 확대**(예: 3 → 5백만불)하고, 소액차관의 경우 차관이자 면제 방안을 검토

* 소액차관 승인건수는 '07~'12년 11건으로, 분리구매와 함께 시행시 시너지 효과 기대

- 본구매 입찰시 **분리발주(Breakout) 확대**, 중소기업은 **선수금율 인상** 및 **하청업체에게 직접 결제대금 집행**토록 변경

○ **(정보제공)** 수원국의 사업구상 및 발주준비 과정에 대한 **기술자문*을 강화**하고, **시행계획 연초공시***로 사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EDCF가 전문가를 고용, 파견하여 사업발굴·설계·구매 등에 대한 자문 실시

** (예) 국별지원전략(CPS) 주요 내용 및 중기 후보사업 목록 공개

-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을 신설**('13.1월)하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11개)와 연계하여 **수원국 정보·사업신청 방법 등을 제공**

* 수은 EDCF 해외사업 지원제도, 해외사업 정보, 행사소식 등을 제공

○ **(컨설팅)** ADB, IDB 등 국제개발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컨설팅 제공**

- 조달청·중기중앙회 및 해건협 등 6개 협회*와 공동으로 **EDCF/국제조달시장 입찰서 작성 등 실무교육 실시**(반기 1회)

* 해건협,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EDCF/재정부 공동으로 EDCF/MDB 입찰방법 등 교육

3 수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가. 글로벌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 우대**

* 금리우대(0.5%p), 대출한도 확대(수출실적의 70% → 100%)

○ **(무보)**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및 기술우수기업에 무역금융 지원**

* (창업기업) 기업당 5천만원까지 100% 전액보증 및 보증료 50% 할인
* (기술우수기업) 기보 추천을 받아 기업당 최대 5억원 범위에서 특별보증

○ **(신보)** 수출준비 또는 **초보기업**(수출이 매출액의 10%미만) **보증우대**

* (내수기업) 매출액 한도 사정 배제(수출준비자금 1억원, 수출개시자금 3억원까지)
* (수출초보기업) 보증한도(자기자본의 3배 → 적용배제), 부분보증(85 → 90%), 보증료 0.2%p 차감 등

□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중진공) 수출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당 융자한도** 예외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수출 급증에 따른 자금애로 해소**

* '13년 수출 정책자금(억원) : (당초) 700 → (변경) 1,000
** 융자한도 : 잔액기준 45억원(지방기업 50억원), 매출액의 150%

○ **(수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대출* 규모 및 포괄 수출금융 대출한도**를 확대**

* 수출이행능력 및 거래 안정성만을 평가하여 신용대출 : ('12) 125 → ('13) 500억원
** 중소기업 : 250 → 400억원, 중견기업 : 350 → 600억원

○ **(무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SMEs & Global 프로그램) 도입**

* 수출 성장도에 따라 보험·보증 우대, 컨설팅 등 종합 무역서비스 제공

○ **(기보)** 사후송금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채권매입 보증' 도입**으로 무신용장 방식 수출금융에 대한 보증 강화

* '13.1분기 수출결제방식 비중 : 송금(64.3%), 신용장(12.8%), 추심(9.5%)

○ 건설공제조합의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을 확대***하고, 수은·무보 등 **이행성 보증 심사시 해건협 사업성평가 반영 강화**

* 보증규모(억원) : '12년 1,100 → '13년 2,000

나. 수출금융의 효율성 제고

□ **금융-非금융 연계 지원**으로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 **(중진공)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의 양산 및 디자인 개발 등 소요비용을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우대지원**(한도 10 → 30억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수은) 수출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국제계약 법률자문 등 **비금융서비스 확대****

* 시설확장·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대상에 수출유망기업을 포함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앞 비금융서비스 : ('12) 952건 → ('13^{e}) 1,000건

○ **(무보)** 중소·중견기업 **보험인수 규모를 확대(35 → 40조원)** 하고, **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 등 수출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

* 예) kotra(지사화사업)과 무보(중소기업 단체보험)의 상품 연계

□ **정책 금융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정부 지원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에 대한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기관업무 평가 반영** 추진(기재부·산업부·중기청)

* 제1차 무투회의 :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67.4 → 73조원, 5.6조원↑)

· 기관별 규모(조원) : (수은) 25→25.5(0.5↑), (정금공) 0.2→0.3(0.1↑), (무보) 35→40(5↑)

4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가. FTA 대응 및 활용 역량강화

□ **지방중기청 FTA 활용지원 기능 활성화**

○ 수출지원센터 수출 **전문위원의 FTA 활용지원 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사 자격과정 등 전문교육 강화로 센터당 원산지관리사 1인 이상 확보

○ **FTA 상담 전문가를 추가 확보**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무료상담 등 서비스 제공(관세사 : '12년 120명 → '13년 200명)

□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FTA 교육 및 컨설팅**

○ 담당자 및 CEO 대상 **FTA 활용 교육 확대**('12년 7,338명 → '13년 8,000명)

○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최종 수출단계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찾아가서 전과정 지원**

-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5일간 컨설팅**('12년 448개사 → '13년 700개사)

□ **중소기업에 원산지증명 시스템 연계 지원 강화**

○ ERP 등 사내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맞춤형 원산지 증명 시스템 개발 지원**(업체당 총 비용의 50% 이내 1천만원까지)

* ('12) 13억원, 134개사 → ('13) 20억원, 200개사

○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산지 증명 발급시스템(FTA-Pass, FTA-Korea)과의 연계기능 구현('13.12월)

□ FTA 활용 **공동 브랜딩(CO-Branding) 사업 신규**추진('13년 5억원)

* 해외진출 타당성 진단·평가를 통해 현지 브랜드와 제휴 등

나. 엔저 등 환율변동 대응역량 강화

□ 엔底 등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대상*에 엔底 등 환율변동 피해기업 추가**

* 현재 외환부문 지원대상은 KIKO 또는 외화대출에 의한 피해만 포함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중소·중견 여신지원(수은) : ('12년) 23조원 → ('13년) 25.5조원
* 수출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지원(무보) : ('12년) 29.5조원 → ('13년) 40조원
* 수출중기 보증지원(신·기보) : ('12년) 9.4조원 → ('13년) 9.5조원
* 수출기업 특별온렌딩(정금공) : ('12년) 1,793억원 → ('13년) 3,000억원

○ 상반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조기 집행**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특별 인하**(최대 1%p, 수은)

* 상반기 중 중소·중견 대출목표의 60%(13.5조원) 집행 추진

□ 환위험 대응 지원 확대

○ **환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확대**(수은)

* 통화전환옵션 행사기회(1회→2회), 선물환거래 서비스 한도 확대(20→50백만불)

○ **환변동보험**을 전년대비 **1.3조원 증액**(2.5조원)하고 **보험료 인하**(무보)

* 이용한도 5백만 달러 이내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료 20% 할인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환변동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 환위험 관리 컨설팅 및 교육 강화

○ 환위험 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강화(중기청, 중진공, 금감원)

- 중소기업 **수출애로 컨설팅 지원 대상에 '환위험 관리' 포함**

○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연 1,500개사) 의무교육에 환관리 교육 포함**

○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상 **환위험 관리 교육 정례화***(연 1,000개사)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6월, 12월)에 맞춰 총 22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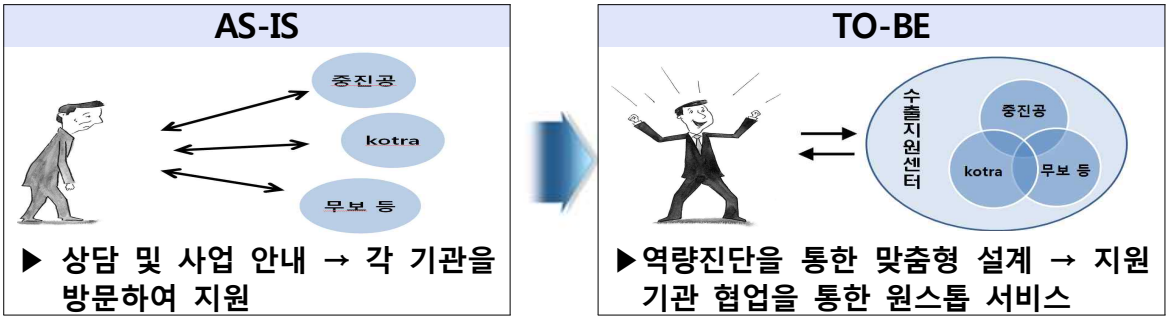
5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가. 원스톱 수출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 **수출지원센터에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수출애로 상시발굴 및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 시현**

* 5대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에는 중진공과 kotra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타 지역은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무보, 수은 등) 인력 보강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체계 >



○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장으로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13년 하반기)

○ 중소기업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감안, **수출지원센터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밀집지역으로 이전 검토**

□ 수출 애로해소 총괄 등 지역별 원스톱 서비스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13년 하반기)

* 산업부, 중기청, 중진공,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파견인력으로 구성

□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협업지원 체계 마련**

○ 센터장이 유관기관간 협업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센터 입주 및 파견기관의 협업분야 경영평가 권한 부여**(기재부·중기청 협업)

○ 유관기관 **'협업업무 점검회의'(가칭) 정례화**(월 2회 이상)를 통한 협업과제 발굴 및 수행상황 점검

나. 해외 현지 네트워크 보완 및 특성화

□ **수출 인큐베이터 확대 및 특성화**를 통한 전문서비스 제공

○ EDCF 활용국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 인큐베이터(BI) 신규 설치** 및 국가별 유망산업 중심으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입주 업체에 대해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국가별로 수출 유망품목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국 **수출인큐베이터 우선 입주**

* 국가별 수출전략품목 : 러시아(코크·밸브 260%), 인도(모니터 및 TV수신기 53%) 등

□ **전문분야 및 신흥시장 중심 해외 민간네트워크 확대**

○ 해외 마케팅 지원 위주에서 **법률·회계·지재권 보호 등 전문분야를 추가**하고,

○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

* ('12) 43개국 132개 → ('13) 50개국 135개 → ('14계획) 60개국 이상

□ 해외민간네트워크·수출지원기관 해외지사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 상시 발굴체계 구축**

○ 해외정보 수집·제공 기능(1국가, 1 민간네트워크) 확대(개별기업 →기업·정보제공강화) 및 정보생산 채널지원 강화

○ kotra, 무협, 무보, 수은 등 해외지사는 지역별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분석 제공

➡ 국가별·업종별 해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Ⅴ.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비고
1. 수출역량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글로벌 역량진단 프로그램 도입	'13. 7	중기청
②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도입	'13. 8	중기청
③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R&D지원 확대	'13. 연중	중기청
④ 글로벌 브랜드 개발 지원 확대	'13. 연중	중기청
⑤ 수출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13. 하반기	중기청
2. 해외진출 방식의 다양화		
① 대형유통망 진출지원 인프라 구축	'13. 5~	중기청, 중진공
② 해외 중기제품 전용매장 설치 확대	'13. 하반기	중기청, 중진공
③ 해외 대형유통매장 직접진출 지원	'13. 하반기	중기청, 중진공
④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추진	'13. 5	중기청, 중진공
⑤ 홈쇼핑 해외플랫폼을 활용 해외진출지원	'13. 하반기	대중기협력재단
⑥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설치 확대	'13. 상반기	kotra
⑦ EDCF 중소기업 전용 소액차관 사업범위 확대	'13. 하반기	기재부
⑧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확대	'13. 연중	수은
3. 체계적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① 수출준비 및 초보기업 보증우대	'13. 상반기	신보, 무보
② SMEs & Global 프로그램 도입	'13. 6	무보
③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을 통한 금융지원	'13. 연중	수은
④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13. 하반기	기재부,산업부, 중기청
4.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① ERP 등과 연계한 원산지 증명시스템 개발	'13. 5~	관세청, 중기청
② FTA 활용 공동 브랜딩 사업 추진	'13. 하반기	중기청
5. 중소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①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	'13. 5	산업부, 중기청
② 중앙수출지원센터 설치	'13. 하반기	산업부, 중기청
③ 지역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13. 하반기	중기청
④ 유관기관 협업지원 체계 마련	'13. 5	기재부, 중기청